

ㄷ불규칙동사의 내적 재구

유 필 재
(울산대학교)

Yoo, Pil-Jae. (2005). On the internal reconstruction of t-irregular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1(3), 635-654.

In Korean, stem final -t can be of two kinds. One always remains a -t, the other changes to an -l before vowel. The latter is called in Korean grammar the t-irregular ver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some t-irregular verbs by internal reconstruction. ‘곤-(say)’ and ‘실-(can)’ were identified as t-irregular verbs when some Hangeul texts was available. We also reconstruct ‘*절-(get salted), 절-(< *덜-)(be oiled)’ on the basis of reflex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T-irregular verbs and some verbs which show special stem alternations in Middle Korean have the irregular inflection. This irregularity can be a key to reconstruct ‘어르/얼-, 염-(marry)’. These reconstruction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we have 20 t-irregular verbs in Middle Korean to the present.

Key words: t-irregular verb, Middle Korean, internal reconstruction, reflex, irregular alternation

1. 서 론

본고의 목적은 내적 재구의 방법을 통하여 ㄷ불규칙동사 몇몇을 새로이 재구하는 데에 있다. 재구를 통해 새로이 몇몇 어간이 추가되면 ㄷ불규칙동사의 목록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먼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정된 ㄷ불규칙동사의 목록을 2장에서 제시한다. 이들을 통해 후기중세국어 ㄷ불규칙동사의 공통적인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ㄷ불규칙동사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중세국어 문헌자료가 보충되어 새로운 활용형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 패러다임이 완전한 것이 되면 해당 어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헌에 나타난 활용형을 정확히 해석하거나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ㄷ불규칙동사의 반사형을 단서로 해서 ㄷ불규칙동사를 재구할 수 있다. ㄷ불규칙동사를 포함한 불규칙용언은 교체 양상이 특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교체의 특징이 재구에 이용될 수도 있다. 4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다듬어진 ㄷ불규칙동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2, 3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될 표기 방법을 미리 언급하도록 한다. 후기중세국어의 방점 표기는 평성을 L, 거성을 H, 상성을 R로 표기하기로 한다. {埋}를 의미하는 ‘묻-’과 {問}을 의미하는 ‘묻-’처럼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규칙동사 쪽에 느낌표(!)를 붙인다. 따라서 ‘묻-({埋})’, 묻-!({問})처럼 어간을 표시하게 된다.¹⁾ 성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용례의 출전은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 경우에만 밝히기로 한다.

2. ㄷ불규칙동사의 교체 양상과 목록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후기중세국어 ㄷ불규칙동사의 일반적인 교체 양상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목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ㄷ불규칙동사의 교체 양상을 성조와 분절음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음절 어간의 경우 성조는 이른바 ‘유동적 상성’²⁾ 어간과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평성 어간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걷-!({步})’과 ‘듣-!({聞})’을 예로 들어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걷고 **RH**, 거러 LH, 거르며 LHH, 거루미 LHH
 듣디 LH, 드러샤 LHH, 드르며 **LLH**, 드로니 LHH

유동적 상성 어간은 자음어미 앞에서만 상성이고 그 외 모음 앞에서는 평성으로 교체된다.³⁾ ㄷ불규칙동사이면서 유동적 상성 어간이 아니라면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매개모음은 거성이다. (1)의 ‘듣-!({聞})’을 ‘묻-!({埋})’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2) 묻고 LH, 무더 LH, 무드리라 **LHLH**, 무두른 LHH

분절음 차원의 교체 양상은 현대국어와 같다. 자음 앞에서는 ‘Xt’, 모음 앞에서는 ‘Xr’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⁴⁾ 예문 (1)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체 양상이 유사한 용언들의 활용 패러다

1) 최근에는 ㄷ불규칙동사의 이형태를 각각 기저형으로 하여 해당 어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논점은 해당 어간이 ㄷ불규칙동사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기저형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2) ‘유동적 상성’에 대해서는 金完鎭(1977) 참조.

3) 그러나 어미 ‘-으/으시-’ 앞에서만은 상성으로 나타난다.

4) 金奎奎(1994)는 ㄷ불규칙동사의 교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ㄷ불규칙동사 ‘듣-!({聞})’은 ‘듣-’과 ‘드르-’가 교체되는 것으로 본다. 어떤 해석을 하든 본고의 논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ㄷ불규칙동사 어간의 교체 양상을 말음이 ㄷ인 어간, 이른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어간(예 : 거르/걸○- 瀾), 말음이 ㄹ인 어간과 비교한 것이다.

표 1. ㄷ불규칙동사와 다른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 비교⁵⁾

	ㄷ불규칙동사		ㄷ	‘거르/걸○-’류	ㄹ
I	듣다(聞) LH	걷다(步) RH	깎다(卷) LH	거르다(瀾) LLH	걸다(掛) RH
II	드러 LH	거러 LH	거더 LH	걸어 LH	거러 LH
III	드르면 LLH	거르면 LHH	거드면 LHH	거르면 LLH	걸면 RH
IV	드루되 LHH	거루되 LHH	거두되 LHH	걸우되 LHH	거루되 LHH

음영 부분의 활용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드르면’에서는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거르/걸○-’류에 속하는 용언 어간들은 모음 ‘-아/어’나 ‘-오-’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걸어, 걸우되’처럼 항상 분절되어 나타난다. 또 어간 말음이 ‘ㄹ’일 때는 다른 자음들과 달리 모음 뒤에서처럼 매개모음이 탈락된다. ‘걸면’이 그 예이다.

아래의 어간들은 문헌자료에 나타난 활용형들이 분절을 상으로나 성조 상으로 이상의 교체 양상과 일치하므로 ㄷ불규칙동사에 속한다. 또 이들은 중세국어 사전들에도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다.⁶⁾

걷-! R(步), 걸-! R(織), 긴-! R(汲), 눈-! R(焦), 듣-! R(落), 묻-! R(問),
싣-! R(載), 흩-! R(散), 붙-! R(潤, 殖, 脹)

듣-! L(聞), 듣-! L(走)

다들-! LL(着), 썩들-! HL(覺), 아철-! LH(厭)⁷⁾, 일꾼-! LL(謂)

5) 1음절 용언으로 한정하여 ㄷ불규칙동사 이외의 어간들이 가지는 성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 말음이 ‘ㄷ’인 경우는 대부분 평성이다. 그 외에 거성인 어간이 하나(예 : 뜰-~뜰-), 고정적 상성인 어간이 하나(예 : 연-) 있다. 어간 말음이 ‘ㄹ’인 경우는 어간에 따라 성조가 다르다. 1음절 어간은 아니지만 ‘거르/걸○-’류 어간들은 모두 평성이다. 어간 말음이 가지는 성조의 유형에 대해서는 유필재 (2003a, pp. 92-101) 참조.

6) 앞에서 언급한 유동적 상성 어간은 R로, 매개모음이 평성인 어간은 L로 표시해 두기로 한다. ‘다들-’과 같은 다음절 어간의 경우 어간 성조는 ‘LL’로 표시된다. 이는 어간 첫 음절 ‘다’는 평성이고 둘째 음절 ‘들’은 매개모음이 평성인 어간과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7)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동일한 의미로 어간 말음이 ‘ㄹ’인 ‘아철-’도 존재한다.

아쳐러 LHH <月印釋譜 17:14a>, 아철썩 LHH <楞嚴經諺解 8:72a>

위의 예 중 1음절 어간의 경우는 해당 어간들이 구성성분이 된 복합용언들이 다수 존재한다. 몇 예만 제시한다.

- (3) 첫걸-! LRI(← 첫- + 걸-!)
 것들-! LRI(← 것- + 들-!)
 도들-! RLI(← 돌- + 들-!)
 걷나- RH!
 묻겨주- RLH(問訊)
 듣보- LH!

3. 목록에 추가될 ㄷ불규칙동사들

3.1. 중세국어 문헌자료의 보충

3.1.1. 굴-! LI(ㄹ)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ㄹ}을 의미하는 어간으로 ‘굴-’이 존재한다. 자음어미나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한 활용형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굴’에서 어간 발음이 ‘ㄹ’임을 알 수 있다.⁸⁾

- (4) 굴 알 曰 <新增類合 上:14b>

한편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ㄹ}을 의미하는 또다른 어간이 존재함을 알게 해 준다.

- (5) ㄹ을 운 云 <光州千字文 27a>⁹⁾

(5)의 ‘ㄹ을’은 ㄷ불규칙동사가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보이는 교체 양상과 동일한 것이다.

또 (6)의 예는 문맥상 의미는 {敎}에 가깝지만 어간 형태가 ‘굴’이라는 점이 주목된다(菅野裕臣 1995).

- (6) 네 스승이 었던 사름고 … 즐겨 굴느녀 LLH 즐겨 ㄹ치디 아넛느녀
 <翻譯老乞大 上:6b>

8) 기술적 관점에서는 ‘ㄹ + ㄹ’로 분석하여 어간이 ‘ㄹ’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에서 의미상 {ㄹ}과 관련된 활용형 중 ‘ㄹ’과 연관된 형태가 이 외에는 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런 가능성은 채택하지 않는다.

9) ‘굴’의 활용형 역시 존재한다. 굴 알 曰 <光州千字文 11a>.

결정적으로 《月印釋譜》 卷19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면서 어간 ‘ㄱ-!’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 (7) 無盡意 문즈븄사디 엇던 因緣으로 觀世音 일흠을 이리 ㄱ느니잇가 LLHLH
<月印釋譜 19:1a>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어간 ‘ㄱ-!’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게 해 준다. 우선 현대 제주도 방언에 ‘ㄱ-!’이 존재한다(李基文 1971=1991, p. 70, 濟州語辭典 1995, p. 74).¹⁰⁾ 濟州語辭典(1995)의 예문을 제시한다.

- (8) 밤새낭 ㄱ단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낸 ㅎ다(밤새도록 말하다 보니 어느 부인 죽었느냐고 한다.)

그리고 후기중세국어의 ‘일꺄!’이 기원적으로 “*일- + 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였던 것으로 분석되는 점(李基文 1971=1991)을 고려하면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ㄷ불규칙동사 ‘ㄱ-!’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¹¹⁾

3.2.2. 싣-! R(得)

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 {得}을 의미하는 동사의 활용형들은 (9)와 같다.

- (9) a. 므츨내 제 프들 시러 LH 퍼디 문흠 노미 하니라 而終不得伸其情者 1
多矣라 <訓民正音 2b>
b. 得은 시를 씨라 LH HH <訓民正音 2b>
b'. 十八法을 得히시며 十神力을 쏘 시르시니 RHLH <月印千江之曲 79>

(9 a, b)에 나타난 교체 양상에서 ‘시르- LH’ 혹은 ㄷ불규칙동사 ‘싣-! R’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9 b’)의 ‘시르시니 RHLH’를 고려하면 ‘시르- LH’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으/으시-’는 다른 매개모음어미들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으/으시-’의 두음 ‘으/으’는 어간 말음 ‘ㄹ’ 뒤에서도 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으/으’가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의 성조가 상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동적 상성 어간인 ‘알- R(知)’에 어미 ‘-으면-’이 결합되면 ‘알면 RH’으로, ‘-으시-’가 결합되면 ‘아르시고 RHLH’가 된다.

10) ‘꺄-’도 역시 존재한다.

11) 일본어에서 {語}를 의미하는 ‘kata-ru’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르시니 RHLH’가 가능한 어간 기저형은 ‘시르- RH’, ‘신-! R!’과 ‘실-R!’이 된다. 성조가 RH인 ‘시르-’는 (9 a, b)에서 추론된 ‘시르- LH’와 모순되므로 ‘시르-’는 어간 기저형의 후보에서 제외된다. 또 어간 末音이 ‘ㄹ’인 ‘실-’ 역시 제외된다. 어간 발음이 ‘ㄹ’이라면 매개모음과 결합할 때 (9 b)와 같은 ‘시를’이 아니라 ‘실’처럼 나타나야 할 것이다.¹²⁾ 결국 후보들 중 ㄷ불규칙동사인 ‘신-!’이 가능한 어간 기저형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추론은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신줍게’가 발견됨으로써 확정된다. 金英培(1972, p. 147)에서 (10)의 ‘신줍게’가 {得}을 의미하는 어간의 활용형이며 따라서 이 어간이 ㄷ불규칙동사임을 밝혔다.

- (10) 부터 像을 만히 그리스바 녀느 나라해 골오 돌아 供養 ㅎ스바 福을 모
다 신줍게 RLH 호리라 <釋譜詳節 24:10a-b>

3.2. 근대국어 자료 및 현대국어 반사형의 확인

3.2.1. *절-! R!(漬, 鹽)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漬, 鹽}을 의미하는 동사는 ‘절-’이다. 표준어도 마찬가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 (11) 절:다, 절어, 저:니

서울방언에도 ‘절-’이 있다. 다만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표준어와 다르다. 현재로서는 불완전동사로 분류된다.

- (12) ×, 절어서, 절:면

한편 서울방언에는 같은 의미로 패러다임이 완전한 ‘절-!’이 존재한다. ‘배추가 소금물에 _____’같이 사용된다.

- (13) 절:는다 · 절:게, 절었다, 절으면섬 · 절으니깐

이 ‘절-!’은 《우리말큰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현대 서울방언에서는 ‘절-’과 공존하고 있다.

문헌자료에서는 19세기 자료들에서 현대국어 공통어의 ‘절-’이 확인된다.

- (14) 동침이 … 무를 … 마쵸 저려 ㅎ로 지나 다 절거든 <閨閤叢書 9a>(1869)

12) 劉呂惇(1964), 南廣祐 編(1971)에서는 ‘실-’을 기저형으로 했다.

절다 TJYEL-TA, TJYEL-E, TJYEN. S'imprégner <韓佛字典 552>(1880)

그런데 18세기에 간행된 《蒙語類解 補》에는 이 어간의 발음이 ‘ㄹ’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15) 酒糟透了 술에 젓다 (다라순 둘 덩투지) <蒙語類解 補 20a>(1768)

(15)의 ‘젓다’는 당시의 표기 특징, 그리고 함께 기록된 몽골어의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젓다’는 바로 현재 서울방언의 ‘젖:!’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절다’가 아닌 ‘젓다’로 표기된 것은 당시의 표기 특징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세기는 중성의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기였다(李基文, 1972, p. 194). 이러한 표기상의 특징 때문에 어간 발음 ‘ㄷ’이 ‘ㅅ’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혹은 이 때의 ‘젓다’를 {濡}을 의미하는 ‘젓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를 고려하면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15)에서 몽골어의 ‘덩투지’가 한국어 부분의 ‘젓다’에 해당하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debtü’는 ① 딱딱한 것이 수분을 먹어서 부드럽게 되다 ② 술에 곧드레만드레 취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小澤重男 1983). 위의 예문은 ②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현대국어로 번역하면 ‘술에 절다’ 정도가 된다. 비록 모음어미 ‘-아/어-’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된 활용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의미상 《蒙語類解 補》에 나타난 ‘젓다’는 ㄷ불규칙동사인 ‘젖:!’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17세기 이전 시기에 현대국어의 ‘젖:!’에 대당되는 ㄷ불규칙동사 *젖:!’이 재구되고 이 동사가 현대 서울방언에서 ‘젖:!’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³⁾

또 이 *젖:!’은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으로 재구된다. 2 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후기중세국어에서 1음절 ㄷ불규칙동사는 유동적 상성 어간이 아니면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어간이다. 서울방언의 ‘젖:!’ 역시 둘 중 하나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서울방언에 나타나는 ‘젖:!’은 (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음어미 앞에서 短母音化되는 유동적 장음을 가진 어간이다. 그리고 현대국어 서울방언에서 유동적 장음을 가지는 어간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들의 반사형이다. 그러므로 *젖:!’은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어간보다는 유동적 상성 어간으로 재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3.2.2. 젖-!(< *뎡-!)(油)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油}를 의미하는 동사는 ‘곁:!’이다. 표준어나 서울방언도

13) 이 어간의 사동사가 ‘저라- LH’인 점도 참고가 된다. 사동접미사 ‘-이’는 ㄷ불규칙동사 어간에 결합된다. ‘길- R(長)’의 사동사 ‘길우~길오- LH’에서 보듯이 어간 발음이 ‘ㄹ’일 경우에는 사동접미사 ‘-오/우’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이다. ‘기름에 곁은 작업복’같은 예문으로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16) 곁:다, 곁어, 곁으니, 곁:는

현대국어와 같은 ‘곁-!’은 20세기 초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문서를 기름에 겨러 두며 <대한매일 1908년 4월 9일>

그런데 현대국어 ‘곁:!’에 대당되는 중세국어 어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근대국어 시기 18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에 {油}를 의미하는 활용형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8) 油辣 절어 알씨근하 <譯語類解 補 32a>(1715)

油辣 져다 <同文類解 上:62a>(1748), <蒙語類解 上:48b>(1768)

‘절어, 져다’는 현대국어의 ㄷ불규칙동사인 ‘곁:!’과 의미상 일치하므로 이들을 ㄷ불규칙동사 ‘곁:!’의 활용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19세기에 간행된 《廣才物譜》에도 이 어간이 나타나는데 《廣才物譜》에는 구개음 뒤에서 반모음이 탈락되어 ‘절-!’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19)의 예는 (18)의 《譯語類解 補》에 나타난 예와 내용이 같다.

(19) 油辣 절어 알씨근하 <廣才物譜 2:3b>

(18, 19)의 예들을 실제로 현대국어의 ‘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절-!(절-) > 곁-!’과 같은 변화를 상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가능한 변화이다. 우선 이 ‘절-! > 곁-!’의 변화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다. 표준어에도 (디새 > 지새 > 지와) > 기와, 질삼 > 길쌈, 짓 > 깃’과 같은 예가 있고(李基文, 1972, p. 200) 더 많은 예가 서울방언에서 발견된다(유필재, 2003b, p. 88f).

(20) a. 김생(짐승)¹⁴⁾ · 물김생 · 산김생

길빵(질빵)

b. 경자(정자 亭子)

겸:심~잠:심

b'. 흥경(흥정)

중노 인경(인정 人定)

14) 팔호 안은 표준어형이다.

(20b, b')에서 보는 것처럼 후행모음이 'ㅣ'가 아닌 경우에 과도교정이 일어나게 되면 모음도 반모음 j를 앞세운 이중모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절-ㅣ'의 어간 모음 'ㅣ'가 'ㅈ'로 바뀌어 '결-ㅣ'이 된 것이다. 이로써 근대국어 시기에 {油}를 의미하는 ㄷ불규칙동사 '절-ㅣ'이 재구된다.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절-ㅣ'은 현대국어 '결-ㅣ'의 선대형이다. 그런데 '절-ㅣ'이 나타나는 18세기에,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보인다.

(21) a. 油了 저루다 <同文類解 下:26b>(1748)

油了 절우다 <蒙語類解 下:12a>(1768)

b. 油靴 절은 휘 <方言集釋 2:23b>(1778)

(21)의 어간 '저루-(절우-)' 역시 18세기 말부터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을 겪는다.

(22) 절우다 油了 <才物譜 4:40>(1798)

저루다 Oindre, huiler <韓佛字典 158>(1880)

결국 형태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절-ㅣ'과 '저루-(절우-)'는 서로 관련된 어간이며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라는 동일한 음운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절-ㅣ'과는 달리 이 '저루-(절우-)'는 더 많은 용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루-(절우-)'가 ㄷ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임을 짐작하게 해 주는 예가 있어 관심을 끈다.

(23) 油靴 덜은 휘 <譯語類解 上:46a>(1690)

(23)의 예는 (21b)의 '절은 휘'와 비교된다. (23)의 '덜은'은 15, 16세기 문헌에서도 그 예가 발견되는데 '덜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4) 덜은 조히로 짖고 油單 <救急簡易方 3:2a>(1489)

덜은 LH 깎 간피 油絹帽, 조히로 덜은 LH 간모 油紙帽 <翻譯朴通事 65b>(1517)

일단 이 용례들의 어간을 '덜오-(덜우-)'로 잡는다면 '덜오-(덜우-) > 저루- > 겨루-'와 같은 변화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각 변화의 원인은 ㄷ구개음화와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다. 그런데 '덜오-(덜우-) > 저루- > 겨루-'의 변화를 설정할 수 있다면 '저루-, 겨루-'와 형태론적으로 연관된 '결-ㅣ, 절-ㅣ'도 평행된 변화를 가정할 수 있다.

- (25) 덜우 > 겨루 > 겨루-
 *덜! > 겐! > 겐!
 ㄷ구개음화 과도교정

(25)에서 제시한 변화 과정과 재구는 형태론적 연관성만을 주로 고려한 것이므로 그 타당성에 대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덜!”을 재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24)의 ‘덜은, 덜운’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우선 (24)의 ‘덜은, 덜운’을 ‘어간 + 선어말어미 -오/우- + 관형사형 어미’로 분석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어말어미 ‘-오/우-’가 결합되었을 때 분철되는 경우는 (26)처럼 어간이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동사인 경우이므로 이렇게 분석한다면 ‘덜은, 덜운’은 후대의 ‘겐!’과는 관계가 없는 활용형이 된다.

- (26) 브스디(碎), 붓은
 다르디(異), 달오미

다른 방안은 ‘덜은, 덜운’의 ‘오, 우’를 어간의 일부로 보는 방안이다. 어간 말음이 ‘오, 우’인 용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단일어 어간인 경우이다. ‘마돌오-(締), 뽏오-(隨), 칩우-(決定)’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런데 단일어인 경우에는 ‘덜오-, 덜우-’처럼 어간 말음이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덜오-, 덜우-’가 단일어일 가능성은 일단 배제된다.

둘째는 파생어인 경우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접사 자체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오- LH(固)’처럼 사동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부류, ‘다솔오- LHL(率)’처럼 타동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부류가 있다.¹⁵⁾ 마지막으로 ‘-오/우-’가 결합되었지만 어기의 품사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는 부류가 있는데 ‘지줄우- LHL(壓), 구퇴우- LHL(強)’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⁶⁾ ‘덜오-, 덜우-’처럼 세 부류 모두 접미사는 ‘오’ 또는 ‘우’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27) 매우 ~ 매오-
 에우 ~ 에오-
 휘우 ~ 휘오-

세 번째 종류의 접사는 그리 많은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덜오-, 덜우-’의 ‘오, 우’는 타동파생 접미사이거나 혹은 사동파생 접미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

15)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앞의 사동사 부류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16) 장운희(2002, pp. 113-5)는 이러한 ‘-오/우-’를 ‘空形態’로 처리했다.

로 생각된다.¹⁷⁾ ‘덜오-, 덜우-’의 ‘오, 우’가 둘 중 어떤 파생접미사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때의 ‘오, 우’는 (28)의 ‘불우-’의 접미사 ‘-우-’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28) 거른 콩 질을 수레 불워 LH 汁을 取하야 머그라 以黑豆末酒漬取汁服之 <救急方 下:46a>

산막젓씨 습 설흔 나출 더운 므래 불워 LH 거플 밋기고 郁季仁(산막젓씨)三十箇湯浸去皮 <救急簡易方 3:66a>

(28)의 예들은 타동 혹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어간은 ‘불우- LH’인데 의미상으로 보아 ‘불-! RI(潤) + -우-’의 과정을 거친 파생어로 생각된다. ‘덜오-(덜우-)’를 ‘덜-! + -오/우-’로 분석한다면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이 ‘불-! + -우- → 불우-’의 경우와 일치하여 음운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¹⁸⁾

이상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덜오-, 덜우-’의 ‘오, 우’는 파생접미사로 분석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오, 우’가 파생접미사라면 그 선행요소는 어기가 되는데 이 어기는 다름아닌 ㄷ불규칙동사 *‘덜-!’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근대국어 시기의 ‘절-!’은 그 이전 시기에는 *‘덜-!’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ㄷ불규칙동사와 ‘특수 어간 교체’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먼저 후기중세국어에서 {配}를 의미하는 어간의 활용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¹⁹⁾

(29) a. 그 後에야 놀애 부르며 춤 츠며 룡담하야 남진 어르기를 LLHH 하며 <月印釋譜 1:44b>

b. 혼 중이 님의 겨집을 도적하야 어르노라 도적하야 갈 따에 一箇和尚 偷弄別人的媳婦 偷將去的時節 <朴通事諺解 上:32b>

1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에서 ㄷ불규칙동사는 사동 파생접미사로 ‘-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때의 ‘오, 우’가 사동 파생접미사라면 사동 파생접미사의 이행태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듣-(聞), 들이- LH

듣-(落), 들이- LH

길-(汲), 길이- LH

돈-(走), 들이- LH

18) ‘불우-’와 달리 ‘덜오-(덜우-)’는 다양한 예문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덜-!’에 대한 ‘덜오-(덜우-)’의 문법론적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없다.

19) 일반적으로 {配}를 의미하는 동사는 ‘얼-’로 알려져 있다. 劉昌惇(1964), 安秉禧·李光鎬(1990), 김성규(1995) 참조.

- (30) a. 一千二百 히 後에는 중과 승과 어려 LH 子息 나하 <釋譜詳節 23:35a>
 더 나과 어려 LH 나흔 노미 나를 에도라 돈니니 <翻譯朴通事 上:34b>
 (1517)
 b. 남진 어려 LH 혼 히 남죽^하야 남지니 머리 귀향 가져늘 <三綱行實圖
 烈:14a>
 빅성의 지비 가 남진 어려거늘 LHLH 嫁民間^하야늘 <翻譯小學 9:34a>
- (30') 더 나귀 얼러 나흔 놈이 그저 날을 수머 드니고 那驢養下來的 只趁着我走
 <朴通事諺解 上:31b>(1677)
- (31) 獼猴王이 이쇼되 … 제 겨지비 죽거늘 다른 암홀 어른대 LHH <月印釋
 譜 7:16b>
 그릿 兄弟 다 罪 니버 죽고 어마님도 ^하마 죽고 겨집도 다른 남진 어르
니 LHH <三綱行實圖 忠:6b>,
 어를 취 娶 LH L <訓蒙字會 上:17b>,
 남진 아니 어른 LH 갓나히 월경슈 무슨 것 <救急簡易方 2:54a>
 嫁는 겨지비 남진 어를 시오 LH LH 娶는 남진이 겨집 어를 시라 LH
 LH <內訓 1:70b>
- (32) 쯔 喪亂을 맞니려 샤용 어루물 LHL 발피디 묻히니 <杜詩諺解 25:45b>
 겨지븐 남진의 지블 제 집 사물식 남진 어루물 LHH 도라가다 ^하느니라
 <內訓 2上:3b>

(29)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경우, (30, 30')는 ‘-아/어-’ 모음어미가 결합된 경우, (31)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경우, (32)는 어미 ‘-오/우-’가 결합된 경우이다.

(31)의 동사들은 모두 ‘않, 남진, 겨집(을) X(X는 서술어)’와 같은 문형을 취한다. 이들은 모두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므로 이 동사는 ‘어르- LH’이거나 ㄷ불규칙동사인 ‘얼! R!’이어야 한다.

어간이 ‘어르- LH’여도 ‘얼! R!’이어도 (32)는 모두 가능한 활용형들이다. (30)의 동사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30 b)는 (31, 32)의 동사들처럼 ‘남진 X(X는 서술어)’와 같은 문형을 취한다. 그러나 (30 a, 30')의 동사들은 ‘A와 B가 X’ 또는 ‘A가 X(A, B는 명사, X는 서술어)’와 같은 문형을 취하므로 (30 b)의 동사들과는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 일단 (30 a, 30')의 예들을 제쳐두고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가능한 어간 (1)

	어르- LH	얼! R!
I		
II	어러 LH	
III	어르니 LHH	
IV	어루물 LHH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자음어미와 결합한 예가 없다. (29)의 예들이 자음어미가 결합한 예들이지만 ‘어르기를 LLHH’의 어간은 ‘어르 LL’이기 때문에 ‘어르-LH’와 같은 어간으로 볼 수 없다.²⁰⁾ 따라서 <표 2>에 ‘어르기를 LLHH’의 어간이 되는 동사를 추가해야 한다.

표 3. 가능한 어간 (2)

		어르- LH	얼! R!
I	어르기를 LLHH		
II		어러 LH	
III		어르니 LHH	
IV		어루물 LHH	

이제 남은 활용형은 (29 b)의 ‘어르노라’와 (30)의 ‘얼러’이다. ‘어르노라’는 성조를 알 수 없으므로 ‘얼러’를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30)의 ‘얼러’는 ‘어르기를 LLHH’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활용형으로 생각된다. ‘얼러’는 그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¹⁾ 李基文(1962)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른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동사들이 존재했다. 이 불규칙동사들은 어간 말음절이 ‘ㅁ, ㅌ, ㄹ, + ㅅ / ㅍ’의 구조를 가지고 성조가 평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4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설명의 편의상 대표적인 용언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 ‘어르기를’의 성조 ‘LLHH’는 ‘LHLH’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어르 LL’가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한 활용형도 재구되므로 성조 표기는 정확한 것이다.

21) 현재로서 ‘*얼어’는 문증되지 않는다. 이전 시기의 《翻譯朴通事》에서는 ‘얼어’가 아닌 ‘어러 LH’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朴通事諺解》의 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朴通事諺解》는 《翻譯朴通事》를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번역이기 때문이다. 또 ‘어러’도 ‘*얼어’도 모두 타동사의 활용형이므로 어느 쪽으로 해도 번역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 (33) a. 시므고(植) LLH, 시므며 LLH, 심거 LH, 심고미 LHH
 b. 벅스디(碎) LLH, 벅스니 LLH, 붓아 LH, 붓은 LH
 c. 다르디(異) LLH, 다르며 LLH, 달아 LH, 달오미 LHH
 d. 므르디(退) LLH, 므르며 LLH, 물러 LH, 물로미 LHH

이 중 c와 d를 비교해 보자. 이 두 부류는 다른 교체의 양상은 모두 같고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만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근대국어에 들어 c가 d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면서 사라지게 된다. 현대국어 ‘르 불규칙동사’의 모태가 된 것들이다.

- (34) 척익이 다이지 촌구딕에서 달라 <諺解胎産集要 8b>(1608)
 형실이 상네 사툼과 달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8:60b>(1617)
 이제 사툼의 居喪훈은 古人으로 더브러 달라 <家禮諺解 9:33a>(1632)

따라서 “얼어” 역시 ‘달아 > 달라’와 같은 변화를 겪어 《朴通事諺解》(1677)에 ‘얼러’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얼어”의 성조는 ‘달아’와 마찬가지로 “LH”로 재구된다.

그런데 ‘얼러’의 선대형 “얼어”는 (29)의 ‘어르기를 LLHH’와 같은 패러다임을 이루는 활용형이다. ‘다르/달오-’의 활용형들과 비교해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 (35) 다르디(異) LLH, 다르며 LLH, 달아 LH, 달오미 LHH
 어르기를 LLHH, , *얼어 LH > 얼러

이상의 사실에서 (29, 30')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패러다임의 빈 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 4. 가능한 어간 (3)

		어르- LH	얼-! R!
I	어르기를 LLHH		
II	얼러 <*얼어 LH	어러 LH	
III		어르니 LHH	
IV		어루물 LHH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配}를 의미하는 (29-32)까지의 활용형들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어간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표 4>를 가능한 두 안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²⁾

22) 모음어미 ‘-아/어-’와의 결합형인 (30)의 활용형을 기준으로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면 가능한 어간

표 4-1. (가) 안

	어르/얼ㅇ- LL/L	어르- LH
I	어르기를 LLHH	
II	얼러 <*얼어 LH	어러 LH
III		어르니 LHH
IV		어루를 LHH

표 4-2. (나) 안

	어르/얼ㅇ- LL/L	얼!
I	어르기를 LLHH	
II	얼러 <*얼어 LH	어러 LH
III		어르니 LHH
IV		어루를 LHH

(가)안은 한글학회(1992)의 기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후기중세국어의 일반적인 동사의 양상을 고려하면 (가)안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가)안을 택하면 분절음 구조는 유사하고 성조는 다른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를 설정하는 셈이 된다. ‘어르/얼ㅇ- LL/L’와 ‘어르- LH’의 관계는 ‘묻- R(問)’과 ‘묻- L(埋)’의 관계와 같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묻- R(問)’과 ‘묻- L(埋)’은 의미상 전혀 관계가 없는 同音異義語 관계임에 비해 ‘어르/얼ㅇ- LL/L’와 ‘어르- LH’은 의미나 형태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어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후기중세국어 동사 중 이러한 예는 달리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후기중세국어에서 어간이 2음절이면서 두 번째 음절이 ‘ㄹ, 르’인 용언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어간 ‘어르- LH’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용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모두

은 넷이나 된다. 모음어미 ‘-아/어’와 결합했을 때 ‘어러 LH’가 될 수 있는 어간은 ‘어르-, 얼-, ㄷ불규칙동사 얼!’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저형을 찾는 방법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

표 4-3. (다) 안

	어르/얼ㅇ- LL/L	어르- LH	얼! R!	얼- R!
I	어르기를 LLHH			
II	얼러 <*얼어 LH	어러 LH	어러 LH	어러 LH
III		어르니 LHH	어르니 LHH	
IV		어루를 LHH	어루를 LHH	어루를 LHH

23) 이런 부류에 속하는 용언들의 패턴은 유필재(2003a:98-101)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불규칙동사라는 점에서 규칙동사인 ‘어르- LH’와 구별된다.

첫째, ‘다르/달○- LL/L’류. (36)와 같이 활용하며 약 30 개 전후의 어간이 있다.²⁴⁾

(36) 다르디(異) LLH, 다르며 LLH, 달아 LH, 달오미 LHH

둘째, ‘므르/물리- LL/L’류. (37)와 같이 활용하며 8 개의 어간이 확인된다.²⁵⁾

(37) 므르디(退) LLH, 므르며 LLH, 물러 LH, 물로미 LHH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음 앞에서의 이행태도 첫 번째 부류와 다르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예외들은 어느 정도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 예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외 1> 분절음 조건이 다른 것

(38) 구르/굴리-(頓), 누르/눌리-(壓), 모르/몰리-(不知)

이들은 분절음 차원의 교체 양상은 동일하지만 성조의 교체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외가 된다. 자음 앞에서는 LH, 모음 앞에서는 R과 같은 이행태를 가진다. ‘모르/몰리-’를 예로 든다.

(39) 모르고 LHH, 모를씩 LHH, 몰라 RH, 몰물 RH

<예외 1>에 속하는 예들은 어간을 이루는 분절음의 조건이 다르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불규칙용언들은 어간 모음이 모두 ‘·’ 혹은 ‘-’인데 ‘구르/굴리-(頓), 누르/눌리-(壓), 모르/몰리-(不知)’는 그렇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외적인 어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예외 2> 현대국어 ‘러 불규칙’과 관련된 것

(40) 누르/누를(黃), 노르-(黃), 푸르/푸를-(靑), 꼭르-(靑), 니르/니를-(至)

이들은 어간의 성조가 LH이고 교체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누르/누를(黃)’을 예로 들어 본다.

24) 거르/걸○-(隔), 거르/걸○-(漈), 고르/골○-(均), 그르/글○-(解), 그르/글○-(誤), 기르/길○-(養), 너르/널○-(廣), 니르/넌○-(起), 니르/넌○-(謂), 더르/덜○-(短), 도르/돌○-(回), 두르/둘○-(圍), 디르/딜○-(挫), 디르/딜○-(刺) > (뻘르/뻘○-), 디르/딜○-(焚), 므르/물○-(欄), 므르/물○-(裁), 바르/발○-(直), 부르/불○-(潤), 부르/불○-(演), 브르/블○-(飽), 사르/살○-(生), 오르/울○-(上), 우르/울○-(咆), 이르/일○-(成), 이르/일○-(早), 즈르/줄○-(徑), 즈르/줄○-(絞)

25) 므르/물리-(返), 므르/물리-(乾), 브르/블리-(呼), 브르/블리-(塗), 브르/블리-(貧), 섹르/셀리-(速), 흐르/흘리-(流)

(41) 누르고 LHH, 누르며 LHH, 누르러 LHH, 누르루미 LHLH

<예외 2>에 속하는 어간 중 ‘누르/누를, 푸르/푸를, 니르/니를’은 현대국어의 이른바 ‘러 불규칙용언’(누르다, 푸르다, 이르다)에 소급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노르-, 푸르-’는 각각 ‘누르/누를-, 푸르/푸를-’의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형이다.

마지막으로 ‘설우르- RHL’와 같은 예외가 있으나 3음절 어간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어르-’와 같은 분절음 구조를 가지는 용언 어간들은 직, 간접적으로 모두 불규칙용언과 관련되므로 규칙용언인 ‘어르- LH’를 설정하면 이 어간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어색한 기술을 낳게 된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돌려서 (나)안을 지지하는 논거를 두 가지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후기중세국어에서 {配}의 의미를 가지는 어간으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얼이- LH’가 그것이다. (나)안을 채택하면 {配}와 관련된 어간으로 ‘어르/얼○- LL/L, 얻! R!, 얼이- LH’이 세 가지를 얻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33)에서 제시한 불규칙동사 속에는 파생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이들은 파생접미사 ‘-으/으-’에 의해 형성되고 사동사 혹은 타동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에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한다.

- (42) 길- R(養) : 기르~기르/길○- LL/L : 길우/길오- LH
 넘- R(越, 過) : 너므/넘- LL/L : 넘- LH
 돌- R(回) : 도르/돌○- LL/L : 돌아- LH
 돕- H(入) : 드르/돕- LL/L : 돕- LH
 붙- R(潤) : 부르~부르/붙○- LL/L : 붙우-
 살- R(生) : 사르/살○- LL/L : 살아- LH
 일- R(成) : 이르~이르/일○- LL/L : 일우- LH
 줌- H(沈) : 즈르/줌- LL/L : 줌- LH
 남- R(過) : 나르/남- LL/L
 날- R(起) : 니르/날○- LL/L

‘어르/얼○- LL/L, 얻! R!, 얼이- LH’는 형태상으로는 (42)의 예들과 완전히 평행적인 관계를 보여 주어 이런 어간 설정의 타당성을 지지해 준다.

(43) 얻! R(配) : 어르/얼○- LL/L : 얼이- LH

보충적인 논거이기는 하나 ㄷ불규칙동사 ‘얻! R!’을 설정하게 되면 《月印釋譜》 제7권에 나타난 (44)과 같은 예문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²⁶⁾

(44) 다숫 羅刹이 이셔 암龍이 득외야 毒龍을 얻더니 RLH <月印釋譜 7:27b>

(44)의 ‘얼더니’는 일반적으로 {得, 求}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配}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羅刹이 毒龍을 단순히 ‘얻거나 구하기{得, 求}’ 위해서라면 굳이 암龍이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암龍이 된 이유는 역시 毒龍을 ‘얻기{配}’ 위함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 때의 ‘얼더니 RLH’는 ㄷ불규칙동사 ‘얻! R!’이 자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²⁷⁾

이제 앞서 (29 b)의 ‘어르노라’를 (나)안에 추가하면 패러다임이 더 정연해진다.²⁸⁾

표 5. {配}와 관련된 어간

	*어르/얼ㅇ- LL/L	얻! R!	얼이- LH
I	어르기를 LLHH 어르노라		얼이노라 LHLH
II	얼러 < *얼어 LH	어러 LH	얼여
III		어르니 LHH	얼이려
IV		어루를 LHH	얼유를

<표 5>는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어르/얼ㅇ- LL/L’이 불완전동사였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현재 확보된 예문으로는 *어르/얼ㅇ- LL/L’과 ‘얻!’과의 의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점차 *어르/얼ㅇ- LL/L’는 소멸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마치기 전에 앞에서 따로 미뤄 두었던 (30 a, 30’)의 동사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다. 이들은 타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설정된 ‘얻!’과 구별된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얻!’이 아닌 다른 어간을 재구하기는 어렵다.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도 하나의 동사 어간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모두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얻!’ 역시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²⁹⁾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후기중세국어의

26) 劉呂憚(1964)에서 표제항 ‘얼다’에 대한 뜻풀이로 ‘얼다, 찾다, 結婚하다’를 제시한 점도 참고가 된다.

27) 심사자의 지적에 의하면 이 때의 ‘얼더니’는 ‘구하다, 찾다’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한문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언해문에 대한 해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도 예문 (44)는 논의에 대한 보충적, 참조적 예로만 사용된다.

28) 논의는 다소 소략하지만 菅野裕臣(1995)에서 이같은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29)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명사 ‘얼은 RH’은 문제가 된다. ‘얼은 RH’은 ‘얻! R!’ 혹은 *어르/얼ㅇ- LL/L’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되는데 첫 음절의 성조가 상성인 사실은 후기중세국어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간 ‘얼’을 설정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규 ((1995, p. 389f)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ㄷ불규칙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두 15 개이다.

걷-! R(步), 견-! R(織), 갠-! R(汲), 늪-! R(焦), 들-! R(落), 묻-! R(問), 싣-! R(載), 흩-! R(散), 분- R(潤, 殖, 脹)

듣-! L(聞), 뜀-! L(走)

다들-! LL(着), 씹들-! HL(覺), 아철-! LH(厭), 일꼴-! LL(謂)

본고에서는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어간도 ㄷ불규칙동사에 속한다고 보았다. 모두 5개이다.

곤-! L(曰), 신-! R(得), *절-! R(漬, 鹽), 전-! (< *덜-!)(油), 얻-! R(配)

‘곤-!’, ‘신-!’은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곤느니잇가 LLHLH, 싣줍게 RLH’가 새로이 확보되면서 ㄷ불규칙동사이미가 확인되었다. 근대국어 시기 문헌자료에 나타난 활용형들과 현대국어에 ㄷ불규칙동사 ‘절-!’, ‘견-!’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절-!’과 ‘전-!’을 재구하였다. 그런데 {油}를 의미하는 ‘절-!’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덜-!’으로 재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른바 ‘특수 어간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동사는 분절을 상으로나 성조 상 특이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르/얼으- LL/L’를 재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ㄷ불규칙동사 ‘얻-!’을 설정하였다.

참 고 문 헌

- 金星奎. (1994). 中世國語의 聲調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김성규. (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韓日語學論叢, 381-394.
 金完鎮. (1977). 中世國語 聲調의 研究(再版). 서울: 塔出版社.
 金英培. (1972). 注解釋譜詳節 第 23・24. 서울: 一潮閣.
 安秉禧. (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의 研究. 서울: 塔出版社.
 安秉禧, 李光鎬. (1990). 中世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유필재. (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유필재. (2003a).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語學研究 39(1), 91-110.
 유필재. (2003b). 서울지역어의 음운변화 몇 가지. 서울말 연구 2, 69-98.
 李基文. (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120-153.
 李基文. (1971). 語源 數題. 金亨奎博士 頌壽紀念 論文集. [李基文(1991)에 재수록]

- 李基文. (1972). 國語史概說(改訂版). 서울: 塔出版社.
- 李基文.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東亞出版社.
- 이현희. (2002). 중세 · 근대국어 형태론의 몇 문제. 고영근 밖에.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윤희. (2002). 국어 동사의 통시적 변화. 한국어의미학 10, 97-141.
- 鄭然榮. (1963).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의 성조에 對하여. 忠南大論文集 8. [鄭然榮(1976)에 재수록]
- 鄭然榮.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서울: 一潮閣.
- 菅野裕臣. (1995). 중세한국어 ㄷ변격용언 3제 -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The 17th Conference of AKSE 발표요지문.
- Martin, S. E. (1996). *Consonant Lenition in Korean and the Macro-Altaic Ques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amsey, S. R. (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edited by Boltz, W.G and M.C. Shapiro,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pp. 215-3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朴在淵. (2002). 《中朝大辭典》. 서울: 鮮文大學校 出版部.
- 劉昌惇. (1964). 《李朝語辭典》.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 南廣祐 編. (1971). 《古語辭典(補訂)》. 서울: 一潮閣.
- 《濟州語辭典》. (1995). 제주: 제주도.
- 한글학회. (1992). 《우리말큰사전》. 서울: 어문각.
- 小澤重男. (1983). 《現代モンゴル語辭典》. 東京: 大學書林.

유필재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사서함18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pjyoo@mail.ulsan.ac.kr

접수일자 : 2005. 5. 30

수정본 접수 : 2005. 7. 20

게재결정 : 2005. 9. 8